

신뢰가 진정한 우정을 남긴다



나는 친구와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고 꼭 지키겠어요

I will keep my promises to my friends.

도산 안창호(1878~1938년) 선생님은 교육에 뜻을 두고 여러 학교를 세운 교육가입니다.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중국의 상하이에 있는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장교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졌습니다. 일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독립 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선생님이 이만영이라는 소년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소년단장을 맡고 있던 이만영에게 기부금 2원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년의 집으로 가려 했습니다.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선생님은 소년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다며 기부금을 전해준 뒤에 피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소년의 집에 갔을 때 소년은 집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도 독립 운동가였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몸을 숨긴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친구와 약속을 하지만 쉽게 잊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일이 많습니다. 중국의 성인인 맹자는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일수록 약속을 잘 안 지킨다고 했습니다. 약속은 무겁게 생각하고 꼭 지켜야 합니다.

- * 안창호 선생님은 왜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 *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 *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친구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나는 친구의 약점이나 실수를 들추어내지 않겠어요

I will not pick on or make fun of my friends' mistakes.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사자성은 관중과 포숙의 사귀어라는 뜻입니다. 중국 제나라에 살았던 관중과 포숙의 사귀어처럼 단단한 우정을 가리킵니다. 관중은 제갈공명, 안영과 함께 중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재상으로 손꼽힙니다. 관중의 성공 뒤에는 친구 포숙의 도움이 컸습니다. 관중과 포숙은 어려울 때 장사를 함께 했습니다. 관중이 이익금을 더 가져갔지만 포숙은 욕심쟁이라 생각하지 않고 '관중의 형편이 어려워져 그랬을 것이다.' 하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관중은 세 번 벼슬하는 동안 모두 왕에게 쫓겨나고 말았는데 이때도 포숙은 '관중이 때를 못 만나서 그렇다.'고 위로했습니다. 관중이 전쟁에서 지고 달아났을 때도 '늙은이 부모님이 계시니 어쩔 수 없지 않

은가.' 하고 말했습니다. 관중은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도 합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추어내는 일은 남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친구의 약점이나 실수를 들추지 말고 너그럽게 덮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 * 여러분이 포숙이었다면 관중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 * 여러분이 포숙이었다면 관중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 * 여러분은 친구의 약점이나 실수를 덮어준 일이 있나요?



나는 친구의 비밀을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겠어요

I will not tell a friend's secrets to others.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라 경문왕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문왕은 임금이 되고 나서 갑자기 귀가 나귀처럼 길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하나, 왕의 머리에 쓰는 복두를 고치는 복두장이뿐이었습니다. 복두장은 왕의 귀가 너무 우스웠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비밀이 새어나가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말을 안 하고 있자나 너무 답답했습니다. 복두장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도림사라는 절의 대나무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임금님 귀는 나귀처럼 생겼다!" 말을 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밭에서 '임금님 귀는 나귀처럼 생겼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밀을 들킨 경문왕이 대나무를 베어

베리고 산수유를 심게 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임금님 귀' 이야기와 같습니다. 딱 한 번 이야기했을 뿐인데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이런 말을 하면서 전한 이야기는 언젠가 온 교실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는 일은 당연한 예절이고 친구에 대한 의리입니다.

- * 누군가의 비밀이 교실에 퍼져서 문제가 된 적이 있나요?
- * 사람들이 비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사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레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스님의 진귀론으로 통합 논강을 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1년차)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2년차)

진귀스님의 화엄경 책은 「붓다북」이나 「화엄경강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우리는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화엄경은?

- 한국 불교 실천수행의 주류는 선 이요, 이 선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이 곧 화엄사상이다.
- 화엄사상의 근간은 선정삼매를 바탕으로 하며
- 화엄경은 세존께서 해인삼매에 드시어 증명하시고 문수보살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각 설주 보살들께서 깨달은 경계를 설한 경전이기때 수행하는 모든이들은 화엄경을 수행나침판으로 삼아야만 부처님의 법맥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자신들의 수행법으로 수행정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불교 수행현실은 세속적 어려움 못지 않게 일부 소수의 수행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수행자들은 각종 수행 고난과 병통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 하고 있다.
- 이러한 오락약세에 화엄경은 수행자들에게 걸림과수고와 같음에도 10중 9은 화엄경을 멀리하고 있고 오래 전 대교과에서 잠깐 본게 전부 다인게 한국 수행자들의 현실이렇게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 출가 수행자나 재가 수행자 중, 기 인연되어 화엄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선교쌍수하는 수행자 분들은 혹 원생신으로 이 땅에 오신분이거나 선교공덕이 수승하여 부처님으로 부터 곧 수기를 받을 수행자 일 것이다.

과자진귀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